

# 치안본부 南營洞分室

「金權泰 사건」 「朴鍾哲 사건」 등과 관련해 많은 「공민이  
자행된 인권」의 사고지대 「분실 또는 安家」 6공화정  
組閣의 산실이기도 한 안가의 실체.

羅鍾顯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밀집주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지난 85년 12월 19일 모일간지 사회  
면에 실린 「전 민청련의장 金權泰씨  
첫 공판이란 제목의 1단 기사가 많  
은 독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 기사는 1단 제목에 어울리지 않  
게 2백자 원고지 3장 분량의 상당하  
 많은 분량이었다.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  
소된 전 민청련의장 金權泰 피고인(당  
시 38세)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오전

10시 서울 형사지법 118호 법정  
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중 방청제한 문제로 변호  
인들의 이의제기와 방청객들의 일부  
소란행위로 공판이 일시 휴정되기도  
했다.

오전 10시 22분경 속개된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金피고인이 지난 9월 7  
일 구속되고 10월 25일 기소됐는데 수  
사단계에서는 물론 기소 이후에도 변  
호인들이 무려 20차례나 서울구치소  
에 가서 피고인 점견을 시도했는데도

한번도 허락되지 않았다」며 「20차례의  
점견신청이 허가되지 않은 데 대해서  
울구치소장 앞으로 사실조회를 신청  
한다」고 말했다.

김철은 「金피고인이 검찰송치 이후  
계속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 차  
레 구치소에서 불러내 수사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이때마다 변호인 점견신  
청과 점견된 것이라며 「변호인들이  
조사와 점견이 점치지 않도록 요구한  
것이 한 번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피고  
인 방의권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金피고인은 「지난 9월 4일부터 같  
은 달 20일까지 치안본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  
했다.

이 기사는 다음해인 86년 9월 6일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서 발행한 「말  
지 투쟁」에 폭로된 당국의 「보도지  
침」에 의해 1단으로 보도됐으며 아예  
비치지 않은 일간지도 있었다.

당시 당국의 「보도지침」 내용인 「김  
근태(민청련 전의장) 첫 공판. 金은  
정치범이 아닌 보안사범이므로 스케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건물 전경.

88.5

치기사나 사진 쓰지 말고 공판사실만 1단으로 보도할 것」이었다.

이 기사를 실은 일간지도 물론 1단 제목이었다. 이 신문은 그러나 金權泰씨가 「고문받았다」고 한 말을 「가혹행위」로 표현했으며 「남영동 대공분실」은 「치안본부」로 표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극심한 통제를 받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이 기사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 신문의 기사재는 용기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朴鍾哲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비로소 알려지게 된 반인간적·반문명적인 고문행위가 자행됐던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 실체가 가려진 채 배일에 싸여 있었다.

그 남영동 대공분실은 그로부터 14개월만인 87년 1월 朴근사건으로 비로소 제한적이나마 공개되고 건물의 사진까지 신문에 실리게 됐다.

이 사건으로 현직 치안감 등 대공경찰관들이 구속되고 「고문을 추방하자」는 범국민 운동으로 비로소 각급

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공천심사위원들은 실제로는 이 일반주택 바로 옆의 안가에서 공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權泰씨 사건은 치안본부 대공분실이란 안가에서 고문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폭로된 대표적인 케이스로 「밀실수사」와 「고문을 둘러싼 공방」이 또다시 벌어졌다.

이 사건은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다가 같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다 물고문으로 숨진 朴鍾哲군 사건으로 세상이 들끓던 87년 1월의 야일만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金씨 사건에 대해 당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위원장 柳宅驥 변호사)는 金씨의 조사담당경찰관 등 8명을 독직 폭행 혐의로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리한 검찰결정의 불복, 서울고법에 재정(裁定) 신청을 냈다.

부친경찰서 성(性)고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사건발생 1년8개월, 재정신청 1년3개월만인 지난 1월 29일 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인천지법이 趙永晃 변호사를 「공소유지」 담

수사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본실」 또는 「별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으며,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봉쇄된 상태로 고문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본실이 나 별관에서의 「밀실수사」는 차제에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조간파, FORNIA安家에서

소위 「안가(安家)로 표현되는」 「본실」 또는 「별관」은 수사의 신속한 진행과 수사기관의 실적경쟁으로 인해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상태에서 서슴없이 고문이 자행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란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안가」는 그러나 수사에만이 용되는 것은 아니다.

盧泰愚 대통령이 취임 전 내각을 구성하면서 집무실을 종로구 삼청동 금

당으로 선정, 文貴童 전 경장을 구속하는 등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데 반해 金權泰씨 재정신청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서울고법에 접수된 이후 1년이 넘도록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채 장기미제로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아직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한 번도 金씨에 대한 고문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FORNIA」 「안가」 「FORNIA」...

부인 印재근씨(36)는 지난달 25일 「법원은 재정신청이 있을 경우 2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하나 金權泰씨의 가혹행위에 대한 재정신청은 1년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게을리하는 것」이라며 담담히 이철환·정상학 두 판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金씨의 변호인들은 金씨가 남영동 대공분실에 연행된 후 20일 동안 구속 사실조차 모르고 가족 변호인과 연락

용연수원 건물에 마련하고 취임준비위의 공식적인 업무도 이곳에서 이뤄졌으나 각료인선과 통고 설득작업 등 크비사항은 보도진의 눈을 따돌리기 위해 금융연수원 건물 맞은편 단독주택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盧 대통령 당선자 부부는 연희동 사저를 떠나 이곳에서 거처하면서 크비로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 주택은 「관계당국」의 안가인 것으로 나중에 밝혀지기도 했다.

또 13대 총선을 앞두고 민정당 공천심사위가 밀실작업을 한 곳도 역시 안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문에는 「공천심사위가 밀실작업을 한 곳은 관계당국의 안가가 아니라 남서울호텔 부근 일반주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들은 삼청동 안가로 가는 차하다 곧 이곳으로 옮겨갔는데 2층양옥인 이집은 당중앙위원의 소유로 팔려고 내놨으나 매매가 안돼 빈집이었으며 방 6개에 蔡汝植심사위원장을 제외한 6명이 숙식을 함께 했으며,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전화도 2대만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

도 못한 채 불법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10월 14일부터 기소 후인 11월 29일까지도 20차례나 변호인이 집견신청을 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또 「金씨가 현재도 고문 후유증으로 심한 두통증세와 소화불량에 시달려 상당시간을 누워서 지내는 실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金씨가 盧泰愚 대통령이 취임 후 내린 사면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6공화국의 민주화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비난이 일기도 하는 등 이 사건은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金權泰씨는 지난 85년 10월 29일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된 文龍植씨(28·서울대 국사학과 3년 휴학) 등 26명을 배후 조종하고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서울지검중앙부에 의해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구속됐다.

金權泰씨가 85년 9월 4일부터 25일까지 22일 동안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돼 물고문·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金씨가 검찰에 기 소된 9월26일 오후 3시가 최초였다. 金씨는 이날 검찰청 5층 계단에서 「기적적으로」 부인 印재근씨를 만 났다. 金씨는 부인의 부축을 받고 대 기실로 가며 계단을 내려가는 짧은 순 간에 자신이 당한 고문의 흔적을 보여 주었다.

印씨는 「남편은 처음에 「굉장히 당 했어」 굉장히 당했어」라는 말만 되풀 이할 뿐 말문을 열지 못하더니 이윽고 양말을 벗어 발뒤꿈치 양쪽과 발등을 보여 주었다. 발뒤꿈치 상처는 고문에 못이겨 몸부림치다 생긴 것이고, 발등 에 까맣게 탄 점들이 한두더기씩 있는 것은 전기고문의 흔적이라고 설명해 줬다」고 밝혔다.

그 이후 金씨가 법정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발뒤꿈치 상처는 서울 구치소 에 수감된 뒤 아물면서 10월말쯤 따지 가 떨어졌다. 金씨는 이 따지를 재판 부에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 보관해 오다 그해 12월13일 접견을 위해 구치 소로 왔던 李敦明변호사 睦堯相변호 사 趙昇衡변호사 등에게 보여주고 재

면서 자신이 고문당한 사실을 30여분 동안 또박또박 얘기하자 방청석은 물 을 끼얹은 듯 조용하다가 하나 둘씩 흐느끼더니 금기야는 눈물바다를 이 렀다.

검사가 金씨 발언에 대해 재판부에 한 번 이의를 제기했으나 방청객들은 『조용히 해』, 『계속해』라고 외쳤고 재 판부도 金씨의 얘기를 중단시키지 않 았다.

金씨는 「본 사건의 실제적 진실, 사 법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군 사독재정권을 물리치고 인간답게 살 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요구가 보장되 고 양심수나 재소자의 인간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위의 사실이 충분히 조사 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따지는 접견실에 있던 교 도관 3명의 제지로 전달되지 못하고 金씨가 병사에 되돌아온 뒤 교도관 10 여명에겐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빼앗 겼다. 金씨는 이같은 사실을 12월19일 오 전 10시에 열린 1차 공판에서 재판진 행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으로 진술하 고 자신에게 가해졌던 고문행위에 대 한 「당백하고 엄정한 조사」를 요청 했다.

### 재판정에서 「대공분실」 폭로

시국사건 재판때마다 방청제한으로 소란을 빚고 재판공개 시비를 불러일 으켰던 터였지만 이날도 재야단체회 원, 金權泰씨의 가족 등 방청객들이 방청석을 미리 차지하고 앉아있는 20 여명의 사법경찰들 때문에 법정에 들 어가지 못해 소란이 빚어졌다.

재판부의 인정심판이 끝난 뒤 張基 旭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재판공개의 원칙은 절대로 필요하며 화신법이나

변호인들은 「고문에 의해 공소가 제 기됐다면 공소사실은 무효이다. 따라 서 공소의 적법여부와 고문 및 용공 조착이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고문상 처의 「따지」를 강제 압수한 서울구치 소 보안과장을 증인심문할 것을 요청 한다. 현재 피고인의 몸에 남아 있는 고문흔적에 대한 확인을 신청한다」고 주장했다.

金權泰씨의 고문폭로로 남영동 대 공분실의 존재가 공개적으로 거론됐 고 참혹한 고문의 실상이 알려지게 됐다.

### 「약하고 짧게, 절차 강하고 길게」

金씨가 이날 재판에서 폭로한 고문

정치범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재판공 개는 가혹한 방청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라 방청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기 회를 줘야 한다」고 방청제한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정에 들어오지 못한 방청객들이 출입문을 차고 두드리는 등 한차례 소 란이 벌어진 뒤 金씨의 부인 印재근씨 등 7~8명의 방청객이 법정에서 들 어왔다. 金씨가 재판진행에 대한 피고 인의 의견을 진술했다.

金씨는 「방청제한을 둘러싼 공방 보다 더 급박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다」면서 자신이 9월4일부터 서울 구치소로 옮겨진 9월25일까지 22일 간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5층 15 호 조사실에서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매일 5시간 정도씩 번갈아 당했으며 참혹한 고문의 고통에 몸부림치다 지 문개진 발뒤꿈치 상처의 따지를 고문 의 증거로 제시하려고 보관해오다 서 올구치소 보안과장에게 강제 압수당 했다고 고문 사실을 폭로했다. 가끔 힘에 부치는 듯 피고인석 의 자 동받침을 붙잡고 말을 중단하기도 하

사실은 다음과 같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었지만 소위 「본실」에서 어떤 수사행태가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요약 인용해보자.

「전기고문을 주로 하고 물고문은 전 기고문으로부터 발생하는 쇼크를 완 화하기 위해 가했습니다. 그리고 비명 때문에 목이 부어서 말을 못하게 되면 즉각 약을 투여하여 목을 트이게 하였 습니다. 그리고 25일 집단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구타를 당했 습니다. 잠을 못잔 것은 물론이고 밥 을 굶긴 것도 대략 절반쯤 됩니다. 고 문을 할 때는 밥을 주지 않았는데, 고 문을 하지 않을 때도 밥을 주지 않아 심리적인 압박과 고문이 다가오고

# 소화에 자신을 드립니다 웨스탈 포르테



소화촉진, 가스제거, 이담작용  
**웨스탈 포르테정**  
표준 100개지 100.00원



있다는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고문을 할 때는 온몸을 발가벗기고 눈을 가렸읍니다. 그 다음에 고문대 위에 눕히면서 몸의 다섯군대를 묶었습니다. 발목과 무릎과 허벅지와 배와 가슴을 완전히 동여매고 그 밑에 담요를 깔아줍니다. 머리와 가슴, 사타구니에는 전기고문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발에는 전원을 연결시켰읍니다. 처음엔 약하고 잠게, 점차 강하고 길게, 강약을 번갈아 하면서 전기고문이 진행되는 동안 죽을의 그림자가 코앞에 다가와 이때 마음속으로 「무릎을 꿇고 사느니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는 노래를 뇌까리면서 과연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인간적인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절감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고문은 진술 거부 때문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문을 하면서도 분노와 흥분의 빛이 없이 냉담하게 미소까지 띠고 있었읍니다.」

金權泰씨 사건을 비롯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있었던 朴鍾哲군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장소는 다르지만 감

히 사용하고 있다.

치안본부는 지난 86년10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15층짜리 새 청사를 지었으나 여전히 네 곳에 수사용 분실을 두고 있다.

치안본부 특수수사대가 종로구 옥인동과 영등포구 신길동에 각각 격리된 분실을 두고 있고 문제의 대공수사단이 용산구 갈월동, 의사법외수사대가 종로구 중학동에 각각 분실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외부인사는 물론 동료경찰관들조차 특별한 공무 이외는 출입을 금하고 있다.

또 서울시경이 별도로 대공분실을 운용하는가 하면 각 시도 경찰국이 모두 수사분실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치안본부 남영동분실(업

감한 밤에 사방이 막힌 경찰서 조사실에서 있었던 權仁淑양 성고문사건 등 인권시비가 일었던 사건들은 모두가 「안가수사」가 불러일으킨 사고였다. 고문수사.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반문명, 반인간의 관행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는 데는 권력의 뿌리깊은 인권경시사고와 함께 수사기관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또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밀실수사」를 선호하는 데서 빚어지고 있다.

### 남영동경찰관도 출입 제한

역시 남영동 대공분실 5층 9호실에서 조사받다 물고문 끝에 사망한 서울대생 朴鍾哲군 사건의 경우도 경찰의 실적에 급급한 수사태도와 밀실수사 때문에 빚어진 것이었다.

당시 경찰은 서울대 민주위사건 관련 중요 수배자인 朴鍾雲군(당시 26세·사회복지학과 4년 재적)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한 참고인으로 朴균을 임의동행해 조사하면서 진술을 거부하

격히 말해 주소지는 갈월동이지만 흔히 남영동분실로 불림)과 신길동 특수수사대가 차근 차근을 계기로 일간신문에 사진이 실리고 고문경찰관의 현장 점검때 2명의 풀기자가 남영동분실에 들어가는데 일부 공개되기도 했으나 「대공」이란 특수성 때문에 여전히 비밀에 가려있다.

주위 건물과 담장에 가려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남영동 대공분실은 밖에서 보면 투신을 방지하기 위해 크기를 줄인 폭 30cm 높이 80cm 가량의 길쭉한 창문만 보일 뿐 정면은 벽돌로 둘러싸여 있어 살벌한 느낌을 준다. 실제로 이곳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한 경찰간부는 「분실이 공개되는 것은 대공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며

차 육조에 가득 담긴 물에 머리를 집어넣으면서 목부위가 육조턱에 눌러 사망하게 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87년 1월10일 「안산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 사건으로 경찰에 구속됐던 柳모씨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2주일간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고문을 다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배후 조직을 캐내기 위해 회유협박을 일삼았으며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서슴없이 고문대에 눕혔다고 폭로했다.

朴鍾哲군 사건 이후 고문을 유발하는 주된 동기의 하나가 수사기관의 밀실수사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각급 수사기관에서 운용하는 「분실」 「별관」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겠다.

치안본부를 비롯 시·도경찰국이 본청사와는 별도로 외부인출입이 철저히 봉쇄된 「분실」을 설치, 수사에 활용하는가 하면 임선경찰서는 호텔·여관·파출소속직실 등을 심문장소로 혼

「사진이 신문에 실린 것만 해도 큰일 날 일」이라고 지금도 당황해 하고 있다.

### 전국전망 「안가」 대피하게

朴鍾哲군 사건의 1차 현장검증에 있었던 지난해 1월23일.

검찰은 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용산구 갈월동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5층 조사실에서 주요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관례를 무시하고 피의자인 趙漢慶경위(42) 姜鎭圭경사(30) 등 두 고문경찰관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실황조사만을 실시하고 현장검증은 생략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검증은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 썰감이면 신경통은 치료됩니다



신경통·류마티스·관절염에  
**썰감**  
표본소매가사·10입 3,500원

한독약품

토대로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범행  
을 그대로 재연하는 기소준비 절차로  
서, 사회의 이목을 끄는 강력사건의  
경우 현장검증을 공개리에 실시하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수사의 관례였다.  
현장검증을 지켜보기 위해 이날 아  
침 일찍부터 대공분실 주변에서 지  
고 있던 조선일보 사회부 金汎日기자  
와 범조출입 咸永準 두 기자의 특종으  
로 보도된 '얼굴없는 현장검증'에 대  
해 검찰관계자는 '대공수사단 건물차  
체가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는 보안구  
역이고 대공수사요원 등의 사기를 고  
려, 비공개실황조사만을 실시한 것'이  
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오후 5시30분부터 실시된  
실황조사에 대비, 이날 오전 9시쯤부  
터 오전 5백여명을 대공수사단 건물  
주변에 배치, 삼엄한 경비를 폈다.  
「비공개 현장검증」은 경찰이 「안가」  
가 노출되는 것을 얼마나 꺼리는가 하  
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5월24일 일  
요일 오전 「고문경찰관 3명이 더 있  
었다」는 사실이 정의를구현사제단의 金

勝勳신부에 의해 폭로되고 대공분실  
에 대한 2차 현장검증이 「반공개」리  
에 있었다.

검찰은 현장검증 장면의 취재는 범  
조출입자들이 제비뽑기로 결정된  
2명에 한해 허용, 풀 기자가 취재  
했다.

그러나 역시 대공수사단 건물이 보  
안구역임을 고려, 사진기자들의 입회  
는 허용되지 않았고 검찰수사팀의 활  
영기사만이 범행재연 장면을 카메라  
에 담았다.

현장검증은 차군이 숨진 5층9호  
실에서만 이뤄졌으며 풀 기자들에 의  
해 조사실 내부구조가 공개됐다.

9호 조사실은 3.5평 크기로 방음  
장치가 완벽하게 돼있었다.

또 조사용책상과 의자 침대 등 모든  
가구는 불박이로 돼있으며 탁한 공기  
를 정화시키는 환기장치도 냉방기가  
설치돼 있었다.

조명은 방천정마다 백열전구가 3  
4개씩 붙어 있어 비교적 밝은 편이  
고 창문은 2개가 있으나 외부에서는  
거의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는 구조

였다.

조사실 책상과 창문 바로 밑의 유조  
(높이 50cm) 사이는 1m 높이의 간막  
이로 가려져 있었다.

이날도 대공수사단 건물 주변에는  
3개 중대 3백50여명의 전경이 배치  
돼 삼엄한 경비를 했다. 경찰은 대공  
수사단 건물로 통하는 남영전철역과  
가야호텔앞 등 3개의 골목길에 20  
30명씩의 전경과 바리케이드를 2중  
으로 배치, 일반의 접근을 막았다.

차군 사건이나 金權泰씨 사건 모두  
가 순수대공분야를 전담해야 할 대공  
수사단이 시국사범이나 노동문제까지  
더맡게 되면서 생긴 것이란 지적이  
있다.

**안가 때문에 대공수사 베테랑 희생**

차안본부의 대공분야는 지난 86년  
본부장 밑에 5차장제로 확대되면서  
5차장이 대공분야와 학원 및 노동종  
교 문화분야의 좌경의식화사범 수사  
를 관장하도록 직제를 개편했다.  
경찰은 이때 차안본부 대공요원을

2백9명 증원했고 동시에 5대도시  
의 45개 경찰서에 학원과 노동문제를  
담당하는 대공3계를 신설, 3백84명  
을 증원했으며 경찰이 계장을 맡도록  
했다.

차안본부 5차장은 朴處源차안감이  
말았다가 차군사건으로 구속되면서  
현재는 白亨祚차안감이 맡고 있다.

내무부 직제규정에 따르면 이중 대  
공1부는 간첩 및 반국가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 좌경의식화사  
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 등을,  
대공2부는 북한의 대남선전자료의  
수집분석 등 간첩 및 반국가사범의 수  
사, 대공3부는 학원 노동 문화 종교  
분야의 좌경의식화사범에 대한 수사  
를 전담토록 돼 있다.

그러나 대공분야에서 시국사건을  
다룸에 따라 고문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해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차군사건 이후 차안본부는 지난해  
2월 지금까지 대공수사2단이 맡아  
온 학생 등 일반적인 시국사범 및 좌  
경용공세력에 대한 수사를 원칙적으  
로 일선 시·도경에 넘기기로 하고 대  
공수사2단의 기구를 대폭 축소기로  
했다. 또 특수수사2대 고속도로순  
찰대 등 직할기구와 기능도 대폭 축소  
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차안본부는 이때 대공수사2단의  
수사요원 1백14명 중 26명을 서울시  
경으로 전출발령했고 특수수사2대의  
수사요원 46명 중 절반인 23명을 전출  
시켰다.

일선경찰서의 대공3계도 없애기로  
했었으나 대공3계의 임무를 떠맡을  
적당한 분야가 없어 실현되지 않고  
있다. 차군사건으로 대공분야의 베테  
랑수사관이 구속되는 등 진통을 겪은  
경찰은 특히 대공수사요원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걱정하고 있다.

대공출신으로 '경찰의 별'이라는 경  
무관에 승진했던 사람은 물러난 朴處  
源 전차안감 1명뿐이다. 차전차안감  
은 우리나라 경찰대공수사의 핵심 맨  
베이지 「산역사」라고 입을 모은다.  
일선서장직 경찰국장직도 마다하고  
오로지 대공분야에서만 40년을 일해  
온 차전차안감은 자타가 인정하는 「대  
공수사의 대부」였다.

그런 만큼 대공분야에서의 그의 공

**소화에 자신을 드립니다  
웨스탈 포르테**



소화촉진, 가스제거, 이담작용  
**웨스탈 포르테정**  
효능소량차대: 100정, 10,000정  
한독약품

로도 수없이 많았다. 정부수립 직후의 남로당 조선정관사 위폐사건, 국회프락치사건 등 극적극직한 대공사건수사에 참여했다.

이같이 풍부한 경험과 발군의 업적으로 그동안 5.16민중상 은성화랑무공훈장 보국훈장 등 40여개의 상훈을 받았다.

대공수사의 1인자가 되다보니 신변의 위협도 많이 겪게 됐다. 대공요원들에 따르면 그는 3차례나 북의 암살대상으로 지목됐고, 그중 한번은 그를 암살할 목적으로 남파된 간첩을 대공요원들이 검거함으로써 모면하기도 했다는 것.

그를 아는 사람은 '일에 관해서는 호랑이같이 부하들을 몰아치면서도 부하들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대공분야는 한마디로 경찰의 '별동 특수조직'이다. 이 조직은 대공정보수집·공작·간첩검거·역공작 등을 임무로 하고 있다.

형사 보안 정보 교통 등 일반경찰과 달리 읍지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

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영동포구 신길동에 '신길산업'이란 기관으로 자리잡은 특수수사 2대는 경찰 자체의 기획수사 첩보수사 경제사건수사 등을 맡고 있으며 차군 사건 후 趙漢慶경위 등 2명의 고문경찰관을 경찰이 자체 조사하면서 이곳에서 수사를 맡아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특수 2대도 '신길산업'이란 기관만 불어 있을 뿐 요원들의 출입때를 제외하고는 대형철문이 하루종일 열리지 않는 안가로 내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수수사 2대는 趙경위 등을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수감하면서 보도진의 눈을 따돌리기 위해 똑같은 색깔의 방한과커를 입힌 20여명의 전

킨다는 사망감이 강하다.

이런 이유로朴전치안감 劉井邦 전 경정 등이 5.16민중상을 받았을 때도 그들의 얼굴이 신문에 공개되지 않다가 차군 사건으로 처음 신분이 노출됐다.

경찰이朴전치안감의 퇴진으로 대공업무의 차질을 우려하는 것은 이같은 전후사정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차군사건 후 잡음을 없애기 위해 대공수사단의 기능과 인원을 대폭 축소할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국사법문제로 특수대공업무를 위축시키고 요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학생사건 등 시국사법과 대공사범의 수사는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 위장카판 내건 '안가'의 수사대

경찰은 6.29 이후 전국의 경위 이상 대공간부를 최소 1주~4주씩 재교육시켰다.

경을 모두 모자를 씌운 채 요드리게 해 봉고차에 태우고 가면서 趙경위 등으로 위장시켜 발성을 빚기도 했다.

2대장은 초대 金又鉉총경(현 치안본부 4차장) 安喜相총경(전 강원도경국장·작고) 등을 거쳐 현재는 6대 洪承遠총경이 맡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삼청동별관을 안가로 이용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5공화국의 대형권력형 부정사건인 李哲熙·張珩子 어음사기 사건 명성사건 朴鍾哲고문치사사건 등 대형경제사범 시국사범 수사 등을 주로 다루었다.

사회저명인사 고위공직자들의 사건 때마다 별관을 이용, 체면보호 보안유지를 노렸으며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

여기에서는 주로 취조기술에 대한 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안본부의 또 하나의 '안가'인 특수수사대는 70년대 초반 창설되면서 조선호텔 건너편 자리에 있다가 76년 3월 1대와 2대가 분리되면서 1대는 3년전쯤 우인동으로 2대는 치안본부건물을 지을 때 신길동으로 옮겨갔다.

1대와 2대가 분리된 것은 당시 金致烈 내무장관이 대구지점 차장으로 있던 金병리씨를 치안본부 3차장으로 발탁기용한 뒤 기존 수사대가 청와대의 하명사건에 매달려 있어 경찰 자체의 기획수사 등을 펴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새로 수사대를 발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도 특수 수사 1대는 청와대의 하명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철저히 청와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대의 대장은 초대 李海龜총경(전 안기부 1차장) 宋東燮총경(전 경찰대학장) 등을 거쳐 지금은 曹聖彬총경(8대)이 맡고 있으며 6대 睦진수 총

돼 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때문에 全敏煥씨 비리수사대는 대검 姜原一중수부장대리가 '삼청동 별관에서는 수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삼청동별관은 지난 75년 월남이 패망할 때까지 주한월남대사관으로 사용된 곳으로 감사원건물 맞은편 언덕 배기에 위치해 있으며 자동차출입용 대형철문과 사람출입용 작은 철문이 단기면 높은 담과 지형적 위치 때문에 내부가 거의 들여다보이지 않아 수사 보안이 철저히 지켜지는 곳이다.

이 별관에는 3개의 조사실이 있으며 조사실은 수사관 2명과 피의자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추정되고 있다.

# 썰감이면 신경통은 치료됩니다



신경통·류마티스·관절염에 썰감 표준소매가격 10원 3,500원 한독약품